출판사 부키
부키전문직리포트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잖아",
전문직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 전하는 부키전문직리포트

특종을 독점 취재했을 때의 쾌감, 프로그램의 인기가 뛰었을 때의 흥분…. 많은 직업 가운데 특히나 자신이 목표하는 직업이라면 그런 유쾌한 모습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기대했던 청사진은 어디에도 없다. 특종은커녕 '도꾸누끼'(낙종: 다른 언론사들이 모두 기사화한 내용을 빠뜨렸을 때를 지칭) 스트레스에 연일 시달려야 하며, 마라톤 편집작업이라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몸 성할 날이 없다. 그 직업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직업세계의 현장정보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부키전문직리포트시리즈(이하 부키시리즈)의 '미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키시리즈를 기획한 박윤우 주간은 "피상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특정 직업을 이해하는 청소년이 많다"며 "적성에 맞고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리즈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미화 없는 솔직하고 생생한 원고를 써 주세요, 제발!"

"직업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 미래가치는 어떤 지를 세심하게 살핀 시리즈입니다. 모든 직업을 소개할 수 없어 전문직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이 조금 아쉽지요. 전문성으로 무장한 '직업인'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프로란 무엇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하는 기자》《PD가 말하는 PD》 동시출간을 시작으로《의사가 말하는 의사》《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수의

박윤우 주간. 피상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특정 직업을 이해하는 청소년이 많다며 부키시리즈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이서영 과장. 필자선정을 위해 전문직에 대한 부지런한 공부는 필수라고 말한다.

사가 말하는 수의사》 등 부키시리즈는 현재 다섯째 권까지 출간되었다. '24명의 전현직 기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기자의 세계', '22명의 수의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수의사의 세계'라는 책의 부제가 인상적이다. 진솔한 현장성을 담보한다는 자신감인데, 필자 섭외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뛴 책임편집자 이서영 과장은 "곱지만은 않은 부제"라며 괜찮은 반어법을 구사한다.

"현장정보를 생생하게 담아보자는 기획의도만큼 가급적 많은 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단은 쉬웠으나 일은 쉽지 않았지요. 필자들을 만날 때마다 '체발 미화 없는 솔직하고 생생한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하느라 입이 부르틀 지경이었죠. 필자선정을 위해 각 기 전문직에 대한 공부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좋은 원고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과장이 필자를 확보하는 창구는 가지각색. 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기본, 대표단체를 찾아가 필자 선정을 부탁하기도 했고, 그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참여를 홍보하기도 했다. 〈간협신보〉 〈PD연합회보〉 〈동물과 만나는 세상〉 등 업계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빠뜨리지 않고 샅샅이 뒤적였다. 이 과장은 "전방위로 뛰어다니다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며 "최근 출간된 수의사편은 필자 선정을 수월히 진행한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려움은 필자 선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필자들의 원고가 들어오면서 이 과장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다. 어느 필자는 "미화 없는 솔직하고 생생한 원고"라는 간청을 잊고 근사한 한 편의 논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필자는 개인적인 자부심만을 가득 채운, 영양가 없는 원고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 과장에게 힘이 된 것은 편집자인 자신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해 맞춤 원고를 내놓는 필자들의 남다른 노력이었다. 자신의 원고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한 필자는 인터뷰 구술 정리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써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기자편과 PD편은 비교적 원고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글쓰기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라 크게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을 원고가 속속 들어왔지요. 글쓰기와는 먼 전문직이라 해서 작업이 크게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덜 다듬어지긴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풀어내는 필자들의 원고를 읽는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수의사… 손에는 피, 신발엔 똥이', 직업 이면 샅샅이 스케치

부키시리즈는 목차부터 재미있다. 목차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의심할 법하지만, 부키시리즈만큼은 특별한 데가 있다.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를 펼쳐 목차를 보면, 전체 4장 아래 관련학과 수업현장, 새내기 훈련 과정, 수의사의 세계, 프로라는 이름을 얻기까지의 노력들이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22명의 수의사가 어제의 내일도 아닌, 바로 자신의 현재를 기록하고 있어 의미가 각별하다. '손에는 피가 신발에는 똥이', '뱀에 물리고 악어가 공격해도' 등 에두르는 법 없는 직설적인 원고의 제목도 재미를 더한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기 힘든 책이며, 해당 전문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목차가 알려준다.

"최근의 목차는 2년 전 출간한 첫째 권의 목차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넓은 직업의 세계'라는 장을 독립시켰는데, 시리즈를 진행하며 얻은 수확이지요. 간호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소송매니저, 항공전문간호사, 언더라이터 등이 그것이지요. 늘 있어왔던 정통적인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 그 일을 하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를 많이 담고자 신경 썼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진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보고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좋아합니다."

한편 별도의 장인 '부록'은 이 과장의 순수한 손품과 발품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관련학과 정보를 정리하는 한편, 전문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영화와 만화,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정보를 두루 담아놓았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편의 경우에는 부록이 무려 80여 페이지가 준비됐는데, 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분의 1가량을 덜어내야 할 형편이란다.

"기자편과 PD편은 3쇄를 찍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출간한 수의사편은 벌써 1쇄를 소화했지요. 부키시리즈의 주 독자층은 청소년과 학부모, 입시를 지도하는 교사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의 독자서평과 주위 반응을 보면 예비직업인부터 일반인들까지 주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부키시리즈는 현재 여섯째 권인 디자이너편을 마무리 작업중에 있다. 다음편에 소개될 전문직 분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 법조인, 교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 과장은 귀띔한다. 한편 시리즈의 권수가 더해갈수록 고민이 느는 사람은 이 과장만이 아니다. 부키시리즈에 옷을 입히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표지 컨셉트를 확정, 바탕색만 달리해 내놓고 있는데, 기약 없이 권수가 늘어 가면 색의 선택에 더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부키시리즈를 읽은 독자들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얻는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화려한 직업 이면의 그늘을 보고 진로 결정을 미루었다면, 그것 역시 시리즈가 갖는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직 현장을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한 품성을 갖고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기능을 하는 것이 부키시리즈입니다." 출판

취재_박용두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